



맥클린에 본사를 둔 프레디맥 전경

## 프레디맥 아시안 마켓 지원

# “현 60%주택보급률 끌어올리자”

## 한국어, 중국어등 안내서 발간



임혜빈 KCCD 회장이 프레디맥 28일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맥클린에 본사를 둔 프레디맥이 아시안들의 주택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프레디맥은 구정 설날이 있었던 2월을 맞아 지난 28일 각 아시안 언론과 아시안 직원들을 초청해 기자회견을 갖고, 새로 중국어, 한국어등 4개 국가 언어로 된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발표했다.

베트남, 영어로도 만들어진 크레딧스마트 아시안(CreditSmart Asian) 안내서는 커뮤니티에 기반을 둔 기관들의 소비자 계몽을 위한 최신 교육 자료라고 프레디맥은 밝혔다. 이날 행사에 스피커로 참가한 인사들은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는 전국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소수계임에도 불구하고, 주택 소유 비율은 불과 60%로 비 소수계에 비해 15%P나 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오늘 발표된 크레딧스마트 아시안 안내서는 소비자에게 우량 신용을 쌓고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주택 구입의 단계 및 투자를 보호하는 것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의 이은숙 사무국장은 “이 안내서는 언어, 주택 구입에 관한 지식 부족, 증명 불가한 수입과 신용 부족을 포함해 아시안 아메리칸들이 주택을 소유하는데 장벽이 되는 일반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드와이트 로빈슨(Dwight Robinson) 프레디맥 부사장은 “내집 마련 과정이 특히 영어 구사 능력이 충분하지 않거나, 시스템

운영 방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프레디맥은 주택 소유를 준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현명한 신용 사용의 중요성에 관해 충분한 정보를 갖고 더 많이 알고 배우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프레디맥은 이번 안내서가 주택 구입의 단계와 주택 소유 혜택과 책임에 관해 우수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해 연설한 임혜빈 한인기독교커뮤니티개발협회(KCCD)장은 “한인 커뮤니티가 오랫동안 필요로 했던 자료이며,

흥미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또한 “이민자들은 받을 디딤 단단한 돌이 어디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비유하고 “프레디맥이 이를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고맙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프레디맥의 오버사이트 앤 디벨로프먼트 시니어 부사장인 밥 치엔(중국계)씨를 비롯해 운영본부장겸 사장인 진 맥퀘이드, 한인 2세인 줄리 선(코포레이트 릴레이션스 앤 하우징스 아웃리치 부서 매니저) 등 100명이 넘는 아시안 직원들과 언론인들이 자리를 같이 했다.

송훈정 기자

### 크레딧스마트 아시안은?

아시안 아메리칸 소비자가 우량 신용을 쌓고 유지하며 주택구입 단계를 이해하고 주택에 대한 투자를 보호하는 것을 돕기 위해 다국어어로 발간된 안내서이다. 이 안내서는 프레디맥이 영어와 미국 시스템에 익숙지 않은 이민자들을 위해 개발되었으며,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및 영어 등 4개 국어로 발간됐다. 내용은 우량 신용을 쌓고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 주택 구입 단계, 주택 마련의 꿈을 이루는 것과 함께 동반되는 책임들에 대한 소비자의 문화적 배경과 관련된 정보를 담았다. 크레딧스마트 아시안은 프레디맥과 함께 아시안 아메리칸 포 이퀄리티, 보우트 피플 SOS, 치하야(Chhaya), 차이니즈 아메리칸 시티즌즈 리그, 코리아나 처치 포 커뮤니티 디벨로프먼트(KCCD, 한인기독교커뮤니티개발협회) 등의 단체들이 참가했다.

## 타이슨스 변신 어떻게 될까?

타이슨스코너를 향후 4단계에 걸쳐 고층 아파트와 오피스 빌딩이 운집한 도심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 최근 승인됐다. 기존 상가도 대폭 확대되고, 메트로도 들어설 예정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교통체증이 심해지고 보행자들의 불편이 더할 것이라는 주장들이다. 타이슨스코너의 난개발을 우려하는 사람들은 DC에 인접한 볼스톤(Ballston) 지역이

타이슨스코너에는 향후 1385채의 아파트가 들어서고, 현재 78 에이커인 면적이 무려 두배가 넘는 350만평방피트로 확대된다. 개발 계획은 통과되었지만, 주민들의 우려가 가시질 않고 있다. 타이슨스코너가 볼스톤과 다른 지정학적 특색도 무시할 수 없다. 볼스톤은 DC에 인접해 있으면서(이에 따라 DC에 근무하는 젊은 층들이 인근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것을 편리하게 생

### “볼스톤-로슬린 구역 닮자”

### ‘지하 메트로 건설’ 등 의견들

모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 개발 찬성론자들도 타이슨스 코너가 볼스톤 처럼 될 수 있다며 일고 있는 우려를 잠재우기 바쁘다. 타이슨스코너 개발이 본격화되기 직전 볼스톤이 관심을 끌고 있는 이유는 이 지역이 메트로를 중심으로 인근이 잘 개발되었고, 보행자나 누구든 개발에 따른 편리함과 그 혜택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포스트가 최근 보도한 이같은 볼스톤 지역은 DC에 인접한 로슬린(Rosslyn)부터 볼스톤까지 약 2.5마일에 걸쳐 3마일 구간이다. 알링턴의 오른쪽 일부로 보면 된다. 이곳에는 볼스톤, 버지니아 광장(조지메이슨대학), 사펜돈, 법원, 로슬린으로 이어지는 메트로(오렌지 라인)역이 있다. 이를 중심으로 주변이 개발되었고, 정리 정돈이 잘 되어 있다.

각한다) 여러 도로를 통해 유출입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도시 개발도 격자형으로 잘 되어 있다. 그러나 타이슨스코너는 결정적으로 벨트웨이 495와 123도로 및 7번, 더 나아가 달레스톨 로드가 지형을 동서로 또 남북으로 가르고 있다. 레스턴과 타운센터를 개발한 로버트 심슨씨도 이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다. 사이즈가 너무 크고 도로가 잘게 잘려 있기 때문이다. 심슨씨는 보행자가 불편하고 전력 사이를 도보로 다니기 너무 불편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우려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되고 있다. 스마터 그로우스연합의 이사인 스티uart 슈와츠씨는 “계획된 전철을 노상에 건설하지 말고 지하로 뚫으면 타이슨스 코너의 올바른 변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123도로를 하이웨이로 연결하지 말고 루트 7에 계획된 것처럼 블루바드로 변경시켜야 한다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변화에 대한 계획과 우려는 앞으로 건설된 메트로를 얼마나 거주자와 근무자들이 이용하느냐에도 달려 있다. 알링턴의 볼스톤의 경우 지난 1980년 이후 메트로 이용자가 무려 36%나 늘었다. 또한 단 40%만이 혼자 차를 타고 통근하고 있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 페어팩스를 비롯한 몽고메리카운티등 메트로에 어긋나는 이 비율이 70%나 된다. 송훈정 기자

LOOKING FOR A NEW CAREER™

KELLER WILLIAMS

REALTY

Andrew D.Park

Realtor / Investor / Recruit Specialist

703-728-3001

www.NovaHouses.com

email: apark@kw.com

12355 Sunrise Valley Dr., Ste 120, Reston, Virginia 20191

(O) 703-679-1700 (F) 703-679-1701

Special Event

집을 구입하시는 모든분들께 집에있는 Bathroom 모두 『비데』를 설치해드립니다.

HOT LIST

투자 전문 부동산  
(E2 비자, 영주권 가능)

BUSINESS

▶ DRY CLEANERS & COIN LAUNDRY MAT HOPEWELL VA \$375,000 **Sold**

▶ DRY CLEANERS RICHMOND VA \$545,000

▶ DRY CLEANERS (BRAND NEW) RICHMOND/MECHANICSVILLE VA \$395,000

▶ PIANO STORE IN GREAT FALLS VA \$500,000

▶ DELI STORE IN HERNDON VA ~~\$200,000~~ **\$150,000 REDUCED**

▶ DELI / CAFE RESTON \$440,000

▶ SUSHI / DELI ARLINGTON \$375,000

GAS STATION AND REAL ESTATE

▶ BP GAS STATION, C-STORE, CAR WASH RICHMOND, VA \$1,500,000

▶ TEXACO GAS STATION CAR WASH, C-STORE RICHMOND, VA \$1,000,000

GAS STATION LEASE

▶ BP GAS STATION PETERSBURG VA \$6500/MONTH

▶ BP STATION, C-STORE, CAR WASH RESTRUANT \$10,000/MONTH

LAND

▶ 58 ACRES UNIONVILLE VA \$790,000

▶ 132 ACRES FRONT ROYAL \$2,200,000

▶ 20 ACRES FRONT ROYAL COMMERCIAL \$5,000,000

▶ 40 ACRES HAYWOOD VA \$925,000

▶ 450 ACRES CULPEPPER VA \$4,750,000

▶ 2 ACRES LAND CONDO CENTREVILLE VA CHURCH USE ONLY \$1,300,000

▶ 6 ACRES BY FUTURE KCPC CENTREVILLE \$1,500,000

▶ 32 ACRES NEXT TO KCPC CENTREVILLE \$2,500,000

▶ 60 ACRES BY GOLF COURSE LEESBURG \$15,000,000 EXCELLENT CHURCH SITE

OFFICE CONDO

▶ 2 UNITS ANNANDALE, VA \$1,000,000

AVAILABLE PROPERTIES WINCHESTER, VA AREA

▶ RETAIL WITH GASOLINE \$4,250,000

▶ 89 APARTMENT / RETAIL \$3,500,000

▶ AUTO DEALER/RETAIL \$2,950,000

▶ SELF-STORAGE AND MOVING CO \$1,990,000

▶ EXXON 1=81 LOCATION \$1,375,000

▶ OFFICE DEVELOPMENT \$1,350,000

▶ REATIL/OFFICE ON WALKING MALL \$950,000

▶ HISTORIC PROPERTY ON WALKING MALL \$875,000

▶ STONE CHAPEL AND HALL \$795,000

▶ KENNEL BUSINESS AND RESIDENCE \$750,000

▶ OFFICE AND APARTMENT \$315,000

▶ CAR LOT/RETAIL LEASE \$14,000/MONTH

AVAILABLE LAND- WINCHESTER VA AREA

▶ SHOPPING CENTER PROJECT \$13,500,000

▶ 32 ACRE NEAR COSTCO \$13,450,000

▶ 9 ACRES AT WAL-MART \$5,900,000

▶ 2.78 ACRES ON I-81 AT SUPER 8 \$1,500,000

▶ CORNER LOT : STEPHENSON VILLAGE \$1,400,000

▶ OFFICE/RESIDENTIAL DEVELOPMENT \$1,350,000

▶ 1.8 ACRES NEAR WAL-MART \$1,125,000

▶ 2.97 ACRES WITH I-81 VISIBLTY \$1,099,672

▶ 1-ACRE ACROSS FROM WAL-MART \$950,000

RESIDENTIAL

▶ GREAT FALLS VA (LANGLEY 학군) \$2,000,000

▶ BELMONT COUNTRY CLUB \$1,500,000 (NEW ITEM) **Sold**

▶ BELMONT COUNTRY CLUB, ASHBURN \$800,000 (NEW HOME)

LEASE

▶ ANNANDALE OFFICE \$2,700/M